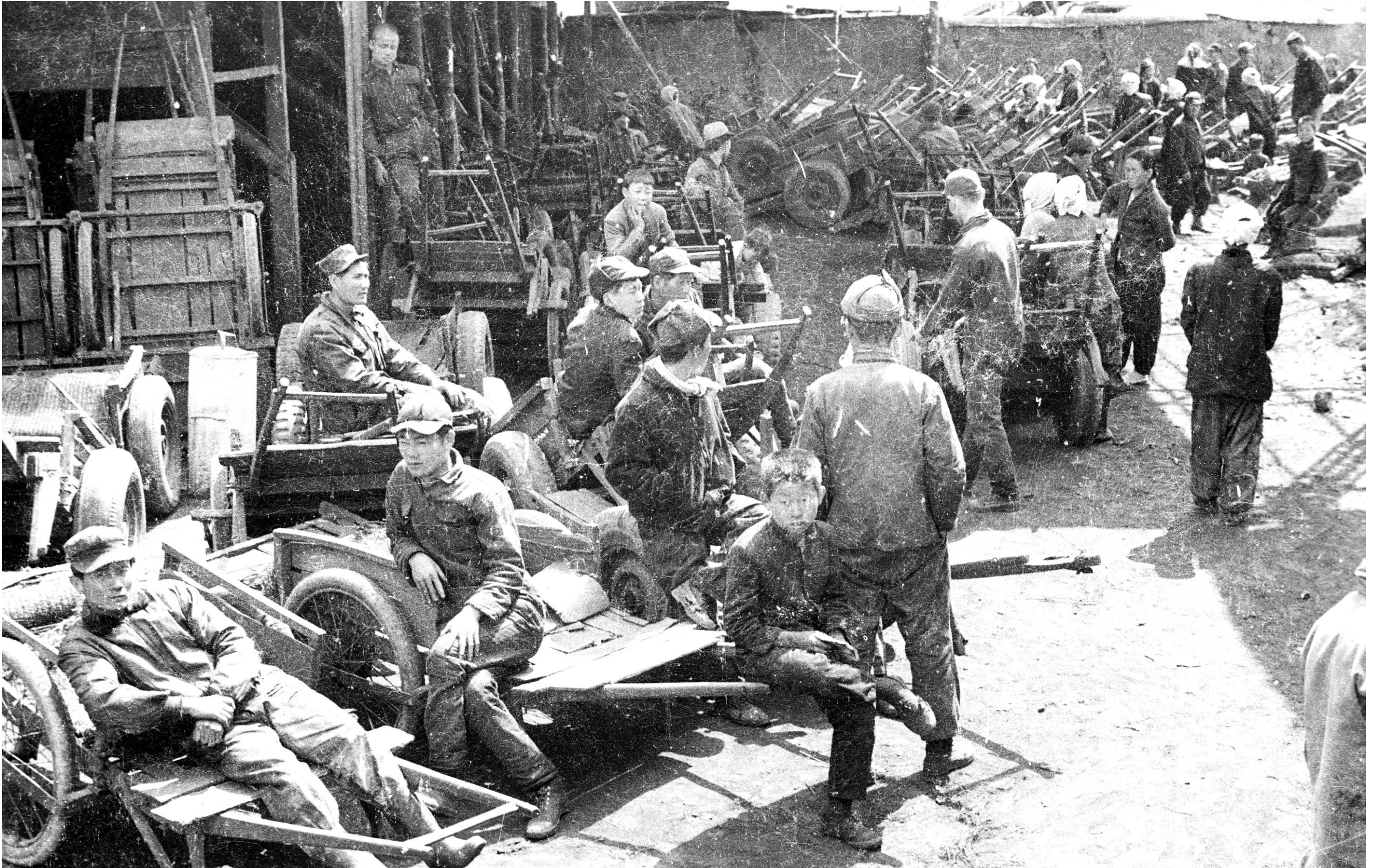


# 광주일보 60년, 광주전남 60년



## 미리보는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사진전

광주일보의 60년은 광주·전남의 60년이였다. 광주일보는 올 가을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본보 사진기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 만들어 낸 1000여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사진전 '광주일보 60년, 광주전남 60년'을 개최한다. 창사 60주년 기념 사진전에 앞서 창사 특집을 통해 미리

보는 사진전(1~3면)을 마련했다.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이번 사진전에는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비롯해 지역의 풍물과 민심,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의미 있는 크고 작은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두 세대에 걸친 호남의 역사와 지역민들의 일상을 만나길 바란다.

## 한 장이라도 더... 연탄공장 앞 장사진

1960년대 가정 연료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연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연탄대란'이 자주 발생했다. 1966년 3월30일 광주시 북동의 한 연탄공장 앞에서 연탄 소매상과 수레꾼들이 지친 표정으로 연탄 수령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광주일보는 1면과 4면에 걸쳐 석탄 수급조절에 실패해 '연탄 기근'을 초래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

1964년 5월26일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에 나선 전남대생들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일본의 사치 없는 한일협상은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벌였다.



## 양동시장 찾은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제4대 대통령이 1960년 12월1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양동시장에서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

## 박정희 의장 순천 수해현장 시찰

▶순천지역에 1962년 8월27일 오후부터 내린 비가 28일 새벽 폭우로 변하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가옥 3774채가 물에 잠기고, 시가지는 실종된 부모와 자식을 찾는 시민들로 아비규환을 이뤘다. 박정희(왼쪽에서 세번째)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순천 재해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